

## “키에르케고어의 『사랑의 역사』에서 드러난 상호주체성(intersubjectivity)”의 기독교 사회윤리학적 의미

장호광(안양대학교 교수)

### I. 서론

### II. 상호주체성의 인식가능성

1. '이웃'의 개념인식
2. '나-너'의 관계
3. 인간 상호간에 드러난 상이성
4. 이웃'됨'의 인식
5. 타자에 대한 이중적 인식

### III. 사랑의 상호 주체적 작용

1. 사랑의 빛
2. 사랑의 덕을 세움

### IV. 결론적 제언

DOI: <http://dx.doi.org/10.21050/CSE.34.06>

---

• ABSTRACT •

---

The Christian Socio-Ethical Meaning of Intersubjectivity  
in *Works of Love* by Kierkegaard

Jang, Ho-Koang(Anyang University)

The current Korean society is filled with the lack of communication and consideration, the winner-take-it-all and weak-to-the-wall mindset, the excessive sense of rivalry,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extreme confrontation(the right and the left) and the splitting and extreme polarization caused by the power harassment of the haves. Namely, the Korean society is faced with the sad reality that moves towards the hostile relationship of hatred and ignorance between self and others rather than it forms the relationships of coexistence and mutual recognition.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introduce the intersubjectivity of *Works of Love* of Kierkegaard, and implicitly to suggest the solutions to address the issues of the Korean society caused by this extreme polarization.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cept of intersubjectivity of Kierkegaard in the recent Korean society. This paper argues that intersubjectivity is not limited to the internal state or human emotions but needs to be expressed as tangible phenomena(behaviors). Also, this paper develops that the intersubjectivity of Kierkegaard is more clearly revealed in the interactive actions that create changes between the lover and the loved, in other words, self and others. This action of Love is introduced as “debt of love” and “virtue of love”. Lastly, this paper emphasizes the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the agents rather than just a simple delivery action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one-sided fixed ‘sender-receiver.’ It concludes with the expectation that the concept of intersubjectivity of Kierkegaard which searches for coexistence and mutual recognition between self and others will contribute to the present Korean society as a new alternative to straighten the recent perversions of it.

**Key Words:** Kierkegaard, neighborhood, intersubjectivity, Works of Love, recognizability

---

## I. 서론

키에르케고어는 자신의 대표적 작품인 『사랑의 역사』의 서문에서 이 작품은 단순히 사랑에 관해 다룬 것이 아니라 타자를 향한 사랑의 행위 혹은 사랑의 역사(役事)에 관해 다룬 기독교적 고찰이라 소개한다.<sup>1)</sup> 사랑에 대한 이런 고찰이 비록 타자에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랑의 역사를 실천하는 인간의 내적 의미가 간과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랑의 상호적 운동으로서 내적 의미가 부각된다. 즉 사랑의 역사를 실천할 수 있기 위해 우리는 사랑하는 자이어야 하며, 사랑하는 자이기 위해 사랑의 역사를 실천해야 한다. 인간의 내면성은 타자의 최상의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내적 방향, 즉 자아의 내적 변화가 외적 존재를 향한 방향과는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부각된다. 이것은 자아의 내면성이 타자와의 실존적 관계 속에서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sup> 따라서 자아의 내·외적 방향이 서로를 규정하기 때문에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다. 이런 내·외적 방향은 참된 주체성을 유지

1) Sören Kierkegaard, *Gesammelte Werke*, Abteilung 19: *Der Liebe tun. Eitliche christliche Erwägung in Form von Reden*, übersetzt von Hayo Gerdes, (Düsseldorf/Köln: Eugen Diederichs Verlag, 1966), 19, VII. 이승구 박사는 이 책을 기독교적 저작이라 명한다. “이 책의 부제가 이를 아주 분명히 한다. ‘강화의 형태로 일어진 몇 가지 기독교적 성찰들(Some Christian Reflections in the Form of Discourses)’. 이 부제에 어울리게 이 책에서 그는 신약 성경의 몇 구절들에 대한 일종의 강해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크록살(Croxall)이 잘 말하고 있듯이, ‘신약의 윤리’가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문자적으로 취하여지고 있다.” 이승구, “키에르케고어의 『사랑의 역사』에 나타난 사랑의 윤리”,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제11권(1호), (서울: 2006), 106.

2) 이명곤 박사는 키에르케고어가 말하는 인간의 내면성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잘 묘사한다. “윤리적인 실존이 내적인 자기 동일성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키에르케고어의 윤리는 본질적으로 행위론에 그 무게가 있지 않고, 존재론에 그 무게가 있다. 즉 내가 윤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선행을 실천하거나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내적인 양태에 달려있다.” 이명곤, “키에르케고르: 윤리적 실존의 양상과 사랑의 윤리학”,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제129집(2014), 177.

하기 위해 행위를 계속해서 발산시키는 구조적 운동(movement)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외부를 향한 방향은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 두 가지 측면이다.

“사랑은 같은 동기를 가지고 자신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외부를 향한 방향) 자기 자신과 더불어(내부를 향한 방향) 존재한다. 이렇듯 사랑은 같은 동기에서 자신으로부터 나오는데, 이런 나옴과 귀환, 귀환과 나옴은 동시적 일이며 같은 것이라는 형태를 띤다.”<sup>3)</sup>

이런 내·외적 양 방향이 ‘사랑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성을 위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즉, 한 인간이 타자와 더불어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의미를 지닌 일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그런 상호적 운동이 단순히 한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운동에 지나지 않을 뿐인가? 아니면 그 운동과 더불어 연루된 상대자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상호 주체적 운동인가? 이런 질문에 답을 추적하다보면 맨 먼저 한 인간과 상대자 사이에 맺어진 관계와 이에 따른 상호성의 측면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를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반목과 질시, 갈등과 증오, 분노, 무시, 가진 자들의 횡포(갑질)로 점철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태어나면서부터 금 손가락을 물고 자라온 재벌 2세들의 슈퍼 갑질 사건은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뿐 아니라 정치적이며 이데올로기적 극단적 대립현상(좌파와 우파)은 적군과 아군의 편 가르기를 양산시킨다.<sup>4)</sup> 이런 시류에 개신교의

3) Kierkegaard, 앞의 책, 19, 309.

4) 강학순 박사는 최근 자신의 저서 『근본주의의 유혹과 야만성』에서 근본주의의 야만성으로 인해 타자를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해야 할 ‘적대적 타자’로 몰아가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한다. 강학순, 『근본주의의 유혹과 야만성: 현대철학에 그 길을 묻다』, (서울:

목사님들까지 합류하여 대형광장에 수많은 교인들을 동원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색깔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반대 측 국민으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 받으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안타까운 한국사회의 현 상황에서 본고는 키에르케고어의 『사랑의 역사』에 담겨있는 상호주체성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의와 중요성을 무엇보다 기독교 사회윤리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암시적으로 제시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상호주체성의 인식가능성

상호주체성을 개념적으로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다양한 학문적 분야, 가령 해석학과 사회학, 심리학, 철학, 윤리학, 신학, 교육학 등에서 다양한 뜻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각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뜻은 ‘상호간 인정’이며, 개개의 주체들이 각각의 고유성을 지니고 있지만 상호 간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우리’를 형성하는 ‘상호관계’이다. 이런 상호간 인정에 바탕을 둔 상호관계는 자의식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자아가 타자와 상호주체적인 공감과 소통이 부재하다면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을 바르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상호주체성의 이론에 따르면 자이는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발전된다. 이 말은 독립된 자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타자와의 만남과 교류 속에서 형성된다는 뜻이다. 순수한 개인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반드시 상호주체성의 구조에서 주체가 형성된다는 뜻이기도 하다.”<sup>5)</sup>

---

미다스북스, 2015).

- 5) 장호광, “칼뱅의 타자에 대한 인식과 상호주체성: 갑질로 물든 한국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위하여”, 한국개혁신학회, 『한국개혁신학』 47(2015), 49.

그런 뜻을 가진 상호주체성은 무엇보다 키에르케고어의 대표적 작품인 『사랑의 역사』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물론 그는 이 책에서 상호주체성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상호주체적 사상이 강하게 묻어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그의 『사랑의 역사』는 윤리학, 그 중에서도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교본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드러나는 주요 대상이 인간의 사회적 행동, 보다 자세히 말하면 사랑이라 일컫는 인간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단순히 인간의 내적 감정이나 흥분으로 제한될 수 없으며, 가시적 현상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그런 현상은 인식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 1. ‘이웃’의 개념인식

키에르케고어의 ‘사랑의 역사’에 있어서 상호주체성의 인식가능성은 먼저 이웃에 대한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 질문은 ‘가장 가까운’이라는 말에서 그 기본적 답을 찾을 수 있다.

“이웃이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너에게 가까이 있는 자다. 물론 편애의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편애의 의미에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사랑에 지나지 않을 뿐이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이웃이란 너에게 다른 어떤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자이다. 그러나 그가 너 자신 보다 더 가까이 있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지만 그가 너이거나 혹은 그가 너처럼 가까이 있어야 한다.”<sup>6)</sup>

이렇듯 이웃은 삶 속에서 마치 자신처럼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자를

---

6) Kierkegaard, 앞의 책, 19, 25.

뜻한다. 이웃이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것은 편애에 의해 선택된 일부의 특정한 사람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인간을 뜻한다. 때문에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친구나 애인과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sup>7)</sup>

그런 뜻을 가진 ‘이웃’의 기본 개념과 더불어 키에르케고어는 “이웃을 바로 알라”는 요청에 귀를 기울일 것과, 이웃과 마주해서 자신에게 지워진 의무를 다할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개인이 책임성을 가지고 의무를 다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상호간의 대화로 인한 ‘관계’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에게 ‘복음’이란 하나님이 항상 인간을 향해 직접적으로 말을 걸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행해지는 대화에 근간을 둔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대화를 통한 인격적 관계는 창조자와 다른 피조물 사이에서의 관계보다 더욱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 나아가 인간들 간의 대화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대화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을 걸 속에서 인간은 나에게서 너로 확장된다.

“성숙과 영원의 숭고함을 지닌 영원성이 끊임없이 너에게 말을 하고 말을 걸지 않는다면, 너의 존재는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성숙과 영원의 숭고함이 결여되어 있다. ... 성숙은 너를 자신과 관계를 맺는데 있다. 너는 해야만 한다. 너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sup>8)</sup>

그러므로 이웃을 알고 자신을 안다는 것은 같은 일의 두 측면일 뿐이다. 우리는 이웃과 거리를 둔 채 자신을 인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의식은 단순히 내적인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이웃을 이웃으로 인식

7) 위의 책, 19, 70.

8) 위의 책, 19, 101.

하는 행위를 통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웃을 이웃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자기중심적 폐쇄성이 지양되는데, 그 지양을 키에르케고어는 자기관계와 이웃관계의 “이중성”으로 특징짓는다.<sup>9)</sup> 그 이중성이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를 이웃의 관계로 규정하게 하며, 그럴 때 사랑은 이기심을 몰아내는 역할을 감당해 나간다.

또한 이웃을 알라는 요구는 이웃을 발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한 특정한 사람을 고르라는 테스트성 요구가 아니다. 오히려 이웃을 알라는 요구는 자기테스트를 위한 요구이다. 왜냐하면 이런 테스트를 통해 타자와의 관계를 알게 하는 동시에 개개인에게 자신의 이기심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은 그들을 단순히 우연적으로 안다거나 직접적인 앎이 아니다. 이웃을 안다는 것은, 먼저 자아가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이며, 그리고 타자를 타자로써 어떻게 보느냐하는 방법에 달려 있다. 때문에 “이웃”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자신의 내면에 있는 타자로서 간주하는 단어가 아니라 타자에게 말을 건다는 뜻이 포함된 단어이다. 이렇게 자아는 타자를 특정한 방식에서 파악하게 되며, 이런 파악은 자아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큰 유익이 된다. 자아는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 먼저 그 이기심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한다. 이것은 타자가 이웃으로 알려질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이렇듯 내·외적으로 향한 방향은 상호 의존적이다.

그런데 이기심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올바르게 배울 수만 있다면 극복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키에르케고어는 다음과 같은 이중적 형태로 자기사랑을 다룬다. 하나는 오로지 이기심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정되어야만 하는 부정적 형태와, 다른 하나는 기독교적 복음에 전제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긍정적 형태이다. 이웃을 안다는 것은

9) 위의 책, 19, 25.

먼저 인간이 자신을 바로 알고 사랑하며, 비이기적 방식으로 사랑할 경우에만 가능하다.<sup>10)</sup> 뿐만 아니라 이웃을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 특히 자신의 의지로 무엇을 행하는 데에 유익을 가져다준다.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는 자신의 관계적 규정성을 정립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이웃과의 바른 관계는 타자와의 관계가 ‘의무’로 주어질 경우에 견고해진다. 따라서 이웃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의무를 ‘인정’하는데 있다. 동시에 이웃 역시 자신의 타자를 염려하라는 윤리적 요구에 응해야 하는데, 이런 요구는 자신에 대한 요구, 즉 주관적 차원과 피할 수 없이 연관된 상호 주체적 차원이다.

## 2. ‘나-너’의 관계

전술(前述)한 사랑으로 인한 상호주체성의 인식은 먼저 ‘나-너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이웃은 자신처럼 가까이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이웃은 자기 자신이 아니다. 자신과 타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불일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키에르케고어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을 ‘첫 번째 너’로써 규정한다. 그러나 그는 이런 ‘나-너 관계’를 직접적인 관계로 규정하지 않는다. 내 안에 첫 번째 너로서의 타자와 나의 관계는 윤리적으로 규범화된 관계인데, 이것은 내 안에 있는 타자를 단순히 다른 나로서 파악하려는 직접성을 거부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sup>11)</sup> 만약 이웃이 ‘첫 번째 너’로 규정된다면 그것은 먼저 나와 너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로 규정된다. 이웃은 단순히 나의 재생산이거나 ‘동일한 것’의 되풀이가 아니다. 이웃은 자신 속에 있는 한 인격이지 자신을 위한 인격은 아

10) 같은 책.

11) “우리가 첫 번째 나 혹은 다른 나에 관해 말한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결코 다가설 수 없다. 왜냐하면 이웃은 첫 번째 너이기 때문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나를 사랑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다른 나가 자신이기 때문이다.” 위의 책, 19, 65.

니다. 즉 이웃이 관계를 통해서만 이웃이 된다는 사실로 인해 이웃은 자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너이다.<sup>12)</sup>

‘이웃을 알라’는 요구는 결국 관계성을 지향한다. 그러나 첫 번째 너로서 이웃과 나의 관계는 ‘직접성’의 붕괴를 전제한다. 이웃을 알라는 요구와 동일시되는 이웃과의 규범화된 윤리적 관계는 직접성의 붕괴를 전제한다는 말이다. 그 관계는 외부로부터 오는 요구를 통해 회복되며, 단순히 존재론에 근거한 관계규정으로 발전되지 않는다.

환언하면, 이웃을 알라는 것은 결국 첫 번째 너로서 타자를 파악하라는 요구이지 단순히 자아의 반영이 아니다. 키에르케고어에 있어서 이웃을 안다는 것은 그 이웃을 나와서 차이 안에서 본다는 것을 뜻하는데, 참된 관계는 이럴 경우에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키에르케고어는 나와 너 사이에서의 차이를 부각시키는데, 그 차이는 윤리적 관점에서 보자면, 한편이 다른 편에 대치될 수는 있겠지만, 그 자리를 결코 점유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고유성과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키에르케고어는 ‘인간성’의 근본적 사상에 초점을 맞춘다. 왜냐하면 인간성은 ‘나’와 ‘너’와의 관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인간성은 관계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역할은 외부에서 오는 요구를 통해 일어난다. 죄로 인해 숨겨진 인간성이 이런 요구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다. 때문에 이웃을 안다는 것

12) 이와 관련하여 홍경실 박사는 키에르케고어의 ‘자아’이해를 자아를 그 자신에게 관계시키는 반성적인 사유활동이며 의지적인 활동성으로 보는 헤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통해 자아를 관계로 보는 키에르케고어는 자아를 그 자신에게로 관계시키는 반성적인 사유활동으로서의 정신을 헤겔의 영향-자아라고도 본다. 또 자아는 관계가 아니고 바로 자아를 자아에게로 관계시키는 의지적인 활동성으로서의 관계성이라고도 이해한다.” 홍경실, “키에르케고어와 레비나스의 주체성 비교”,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제27집(2004), 149.

은 나와 너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인간 상호간에 존재하는 동일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 3. 인간 상호간에 드러난 상이성

전술한바와 같이 상호주체성의 인식가능성은 ‘다름’ 내지 ‘상이성’에서 찾을 수 있다. 키에르케고어는 『사랑의 역사』에서 ‘상이성’의 단어를 다음과 같이 이중적 방식으로 사용한다. 한편으로 상이성은 인간 상호간에 존재하며 외부성에 근간을 둔 비동일성을 나타낸다. 이런 상이성은 본질적 차이는 아니지만 사회적 등급 내지 계급질서를 통해 결정된 상이성이다. 이런 상이성의 형태는 본질적으로 인간성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사회(Gesellschaft)에서 존재하는 서열에서 파생된 것이다. 때문에 이런 상이성은 상대적이며 인간 존재에 대해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익사회의 서열로부터 나온 이런 상이성은 존재론적으로 형성된 인간성의 사상과 일치하지 않으며 발전하는 역사의 경과 속에서 변질된다. 이것이 상이성의 첫 번째 방식이다.

다른 한편으로 상이성은 개별자로서 개개 인간의 표현이다. 즉 개별자의 고유성이다. 어떤 누구도 그 고유성을 취할 수 없으며, 다른 인간으로 대체될 수 없는 특수성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상이성은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것이며, 존재론적으로 주어진 인간적 존재의 양태이다. 이런 상이성은 자신과 이웃 사이에 맺어진 관계에도 불구하고 건드려지거나 훼손되지 않은 채 두 인격성 사이에서의 관계를 보증한다는 점에서 포기되거나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성질의 것이다.<sup>13)</sup>

이런 상이성의 형태들은 그 속에 잠재하는 동일성의 사상과 대립해

13) Kierkegaard, 앞의 책, 19, 255.

있지 않다. 여기서 키에르케고어가 지적하려는 주된 포인트는 부정성의 근거, 즉 죄가 인간들 간의 본래적 관계를 파괴시킴으로 상이성 속에 잠재하는 동일성을 종종 덮어버린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동일성이 단순하게 전제될 수 없으며, '의미'를 얻기 위해 요청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동일성에 관한 요청은 상이성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간의 기본적인 윤리적 관계의 규칙으로써 다음과 같이 복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웃이라는 규정은 인간이라는 규정과 같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지만, 개개 인간에게 고유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상이한 것이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는 본질적 규정에 해당된다. 아무도 상이성의 정도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거나 과신하거나 낮추어 봐서도 안 된다. 어떤 인간도 자신의 특별한 상이성에서 예외란 존재치 않는다. 그는 인간이며, 특별하게 존재하는 존재자이다.”<sup>14)</sup>

#### 4. 이웃 ‘됨’의 인식

키에르케고어에 따르면, 우리가 타자를 ‘이웃으로서 안다는 것’은 행위를 통해 보여주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이웃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웃이 된다는 것’과 ‘주체적으로 된다는 것’은 서로 일치하는 말이다. 주체성은 단번에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14) 위의 책, 19, 157.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타자 윤리학자’로 알려진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역시 인간들 간의 상호주체성을 위해 개별자의 고유성, 즉 다름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상호주체성은 우선 자아와 타자와의 분리, 즉 ‘홀로 있음’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분리는 자아의 내면성, 즉 자아의 개별화를 의미한다. 나와 너의 분리는 상호주체성의 윤리적 관계를 위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타자를 자아 안에 강제적으로 흡수시키거나 통합시킴으로써 자기 지배적인 경향을 떨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아의 폭력성을 피하기 위해 타자의 고유성과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윤리학』(고양: 인간사랑, 2002), 84.

가능해진다는 키에르케고어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웃이 된다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을 요하는 윤리적 과제이다.<sup>15)</sup>

또한 이웃이 된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이웃으로 파악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웃이 된다는 것은 이웃을 안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다. 진정한 ‘앎’은 행위로 인해 형성되는 ‘됨’을 동반한다는 말이다. 물론 이웃을 안다는 것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 또한 포함한다. 우리가 자신을 유지시키며 지킨다는 것은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며 사랑하는 자로 머문다는 것과 동일한 뜻이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며, 자신을 사랑 안에서 유지시킨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사랑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머물도록 영향을 미친다. 그는 사랑 안에 머물면서 사랑하는 자로 머문다.”<sup>16)</sup>

그러므로 자기관계의 지속성은 윤리적으로 규범화된 타자와의 관계를 필연적으로 전제한다. 이것은 모든 개별자에게 ‘사랑의 계명’ 안에서 제기된 윤리적 요청이다. 우리가 이웃이 되면서 자신이 된다는 것은 인격을 형성시키는 윤리적 차원, 무엇보다 사회 윤리적 측면과 관련된다. 이웃이 된다는 것은 결국 행위로 가능해진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에게 행하는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행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5) 최승일 박사는 키에르케고어의 주체성을 헤겔과 하버마스와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은 짧은 글 속에 잘 소개한다. “키에르케고어의 주체는 실존적 결단에서 형성되는데, 헤겔의 사변적인 주체와는 달리 행위가 주체 형성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즉 하버마스에게는 이성, 키에르케고어에게는 신앙적 실존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키에르케고어가 말한 ‘주체는 더 철저한 내면화를 통한 분명한 자기선택으로 참된 실천을 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 말한다.’ 최승일, “하버마스과 키에르케고어에 있어서의 주체성 비교”,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제27집(2002 겨울), 33. 이 외에 근대성에 대한 비판과 포스트모던적 사회현실에서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키에르케고어적인 주체를 해석한 것으로서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표재명, 『키에르케고어의 단독자 개념』, (서울: 서광사, 1992).

16) Kierkegaard, 앞의 책, 19, 333.

환언하면, 이웃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관찰 내지 자기성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이웃으로서 자신과 더불어 알게 될 경우에만 우리 자신이 된다. 이웃을 알라는 요청은 자아와 타자와의 관계를 위해 어떤 특정한 것을 행할 것을 권하는 요청이다. 때문에 이웃으로 알려진 타자는 자신과 맺는, 즉 자기관계를 위해 의의를 지닌다.

이뿐 아니라 타자를 이웃으로 알기 위해서 맨 먼저 우리 자신의 '성향'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성향의 변화는 구체적인 행위와 더불어 일어난다. 따라서 키에르케고어에 있어서 성향의 변화는 이웃에게 행해지는 행위와 동일 시 된다.<sup>17)</sup> 자신을 사랑하는 자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에 있어서 성향의 합리적 변화는 모든 행위에 선행하는 의지의 내적 변화를 말한다. 그것의 가치는 선験적으로(a priori) 결정된다. 물론 키에르케고어 역시 의지의 변화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만, 이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다가오는 기독교적 요청을 통해서이다.

## 5. 타자에 대한 이중적 인식

### 1) 사랑과 불신 사이에서

키에르케고어는 타자를 인식하기 위한 두 가지 상이한 방식에 관해 언급한다. 인간은 타자를 높이 세우는 품격 있는 '사랑'으로 인식하거나, 반대로 타자를 끝없는 나락으로 이끄는 '불신'으로 인식한다.<sup>18)</sup> 사랑 내지 불신은 타자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한다. 때로 사랑은 타자에게서 불신

17) 위의 책, 19, 88.

18) 위의 책, 19, 253.

에 가까운 분노와 불완전성을 보게 한다. 이렇듯 사랑은 불신과 같은 부정적 앎을 깨닫게도 한다. 그러나 불신이 타자에게서 가장 나쁜 것을 믿도록 하는 반면에, 사랑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믿게 하기 때문에 결국 사랑은 불신을 잠재우며 사라지게 한다. 즉 자아가 태도나 행동을 통해 불신을 초래했을 수도 있는 타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불신으로 가득 찬 그에 대한 앎이 자아에게서 제거된다. 분노를 일으키는 타자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자아가 타자에게서 사랑을 보며, 사랑이 그에게서 싹튼다는 사실을 전제함으로 타자를 높게 된다.

따라서 사랑은 타자의 존재 자체보다 더 위대하게 보게 하거나 더 훌륭한 것으로 보게 한다. 인간은 그렇게 타자의 존재 자체보다 더 좋게 보면서 선한 일들이 행해진다. 사랑은 타자의 불완전성을 제거시키면서 타자가 있는 그대로보다 더 크게 그리고 더 좋게 봄으로써 타자의 불완전성을 극복시키게 하며, 결국 타자를 완전성으로 이끌게 한다. “사랑하는 자가 온전한 사랑을 향해 나아가면 갈수록 그 사랑은 보다 온전해진다.”<sup>19)</sup> 높이는 것과 높임을 받는 것은 상호간의 본래적 관계인데, 높임을 받는 자는 변화된다. 왜냐하면 높이려는 자아의 사랑이 타자 안에서 최상을 것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역으로 불신은 타자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주면서 타자를 망가뜨리게 한다. 사랑이 이렇게 타자를 높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아와 타자, 양편의 자기이해를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을 가진다는 사실에 근거해 있다.

## 2) 소망과 의심 사이에서

키에르케고어는 자아와 타자의 일치점, 즉 상호주체성을 ‘선의 가능성’에서 찾는다. 즉 사랑으로 행해지는 선한 사역이 자아의 일방성이나

19) 위의 책, 19, 243.

타자의 일방성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아와 타자의 상호교류에서 가능해진다는 말이다.<sup>20)</sup> 인간은 누구나 선을 행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는 미래를 향한 소망과 더불어 전개된다.

여기서 키에르케고어가 말하는 소망은 자아 내지 타자의 주관적 미래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소망은 자기관계와 타자와의 관계를 포함하는 모든 관계 안에서 선의 가능성을 수용하는 믿음에 근거해 있다. 인간에게 소망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인간은 단순히 자신 혹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족만을 위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은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찬 불완전한 소망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소망은 믿음에 근거한 선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소망의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선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주어진다면, 이런 믿음은 타자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과제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자기관계를 타자와의 관계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제한된 의미에서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가능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다. 따라서 상호주체성의 의미에서 미래에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미래를 향한 타자의 믿음을 사랑을 통해 이끌어낸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반대로, 소망을 포기한 사람은 키에르케고어에 있어서 의심하는 자로 특징지어진다. 의심하는 자는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타자를 위해서도 소망이 없는 자를 말한다. 때문에 의심은 소망의 포기를 뜻하며, 심지어 선의 불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써 규정된다. 사람들로 하여금 거리를 두게 만드는 의심은 타자와의 관계와 자기관계를 더욱 파괴

20) 위의 책, 19, 286.

시킨다. 이렇듯 의심과 소망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런 의심과 소망은 한편으로 자신을 자신과 관계를 맺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 자신을 타자와 관계를 맺게 하는 두 가지 상이한 방식이다. 인간은 소망으로 가득 찬 가운데 관계를 맺어 선의 가능성을 꾸준히 이어가기도 하지만, 자신과 타자의 관계를 포기하면서 선의 가능성을 의심하기도 한다.

소망과 의심의 대조는 전술한 사랑과 불신 사이에서의 대조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자신을 위해 바라는 것과 타자를 위해 바라는 것은 동일하다. 자아는 타자 때문에 수행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바라는 것은 단순히 내적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며, 자아가 타자 때문에 행해지는 구체적인 사역이다.

이뿐 아니라 자아의 소망이 타자의 자기이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타자를 위해 소망을 가진 자는 “모든 순간에 사랑이, 즉 타자를 위한 선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기를 바라며, 그런 가능성은 선으로 가득 찬 타자의 완전성을 향한 진보를 뜻하며, 나락에서 높아짐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이 앞으로 전진해간다는 것을 뜻한다.”<sup>21)</sup>

그러므로 자아가 타자를 높일 수 있으며, 또한 높임을 받은 자가 계속해서 다른 삼자를 높일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타자를 높이는 것이 점점 확장됨으로써 선의 가능성이 널리 퍼져 나가게 된다. 이렇게 사랑에 바탕을 둔 선의 가능성이 널리 퍼져나가면서, 서로를 도우는 인간성의 영역이 확대된다. 선의 영역이 확장된다는 것은 상황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인간들 사이에 신뢰가 바탕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악 앞에서 가지는 두려움을 멈추게 하고, 인간이 자신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에 방해물 일삼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런 신뢰관계를 뜻한다.

---

21) 위의 책, 19, 280.

### III. 사랑의 상호 주체적 작용

키에르케고어는 『사랑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인 사랑의 ‘빛’에 관한 논쟁에서 관계의 한 부분, 즉 사랑하는 자에게 일방적인 시선을 던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랑하는 자를 향한 일방적 시선은 사랑받는 자에게는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가? 변화는 관계의 한쪽 측면에서만 일어나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그 변화는 관계의 다른 측면, 즉 타자가 이웃으로서 알려질 경우 타자에게서도 일어난다. 그러나 자신과 동일한 정도로 타자에게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키에르케고어는 특별한 상호관계 안에 있는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서 양 측면의 지속적 상호관계가 다루어진다. 한 측면은 사랑하는 자의 사랑의 표현에서 무한성을 파악하는 사랑받는 자이다. 다른 측면은 (사랑의)측량할 수 없음을 자각하는 사랑하는 자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랑의)빛이 끝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인식하기 때문이다. 무한히 크며 무한히 작은 것은 하나이며 동일하다. 사랑하는 자가 가장 작은 것들만 가졌음에도 최선을 다하는 희생적 행위로 엄청난 일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사랑의 대상, 즉 사랑받는 자가 사랑 안에서 인정한다.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자가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일들을 희생적으로 잘 해나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빛을 지고 있다는 느낌과 더불어 항상 부족함을 인정한다. 이런 상호적 작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우랴!”<sup>22)</sup>

키에르케고어는 양 측면의 이런 관계를 ‘상대성의 비대칭성(혹은 불

22) 위의 책, 19, 200.

균형)이라 칭한다. 이웃이 된다는 것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희생은 자기관계 안에서의 변화에 바탕을 둔다. 성향의 변화는 이웃을 위해 자신의 최고의 것을 행위로 드러내는 변화를 말한다. 그러나 타자로 인한 자신의 변화는 타자에게 존재하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파악하는 사실에 근거해 있으며, 나아가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보상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랑에 타자가 보상으로 어떤 무엇을 주리라 기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자가 자신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자아는 사랑을 주면서 자기관계의 변화가 타자와 더불어 나타난다. 우리가 자신처럼 타자를 사랑하면서 자신에게 무엇이 행해지며, 동시에 타자에게도 무엇을 행하게 된다. 이런 사랑의 상호 주체적 작용은 ‘사랑의 빛’과 ‘사랑의 덕을 세움’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 1. 사랑의 빛

인간을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끝없는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sup>23)</sup>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무엇보다 인간

---

23) 이승구 박사는 키에르케고어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삼위일체론적이며 구원론적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키에르케고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이해하였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성부 하나님은 ‘그로부터 모든 사랑이 나오는’ 사랑의 원천으로 묘사되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주심으로써 이 사랑을 결정적으로 표현하신 분으로 묘사되며, 성령 하나님은 성자께서 제공하신 사랑의 희생을 상기시키시고 알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된다.” 이승구, 앞의 글, 109.  
이에 비해 임규정 박사는 자신의 논문, “키에르케고어의 사랑의 개념에 관한 일 고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두 종류의 사랑, 즉 ‘관능적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구별한다. 물론 그는 자신의 논문에서 관능적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승화된다는 점을 밝힌다. “키에르케고어는 기독교적인 이웃사랑이 관능적 사랑의 부정이나 폐기가 아니라 승화이며 이는 다시 의무로서의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자는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키에르케고어의 기독교적 사랑이 그의 실존철학의 최종 목표임을 해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의 죄에 대한 용서에서 그 절정이 드러난다. 여기서 키에르케고어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이웃을 사랑하라”는 요청으로 확장시키면서 용서의 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기독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너가 행한 용서는… 너가 준 용서가 아니다.”<sup>24)</sup> 즉 인간이 타자를 용서하면서 경험하는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뜻한다. 용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에서 경험하는 용서는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가치한 용서일 뿐이다. 따라서 인간들 간의 상호규정성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의와 중요성이 여기서 언급되어야 한다. 달리 말해, 하나님은 용서의 근원이자 인간 상호간의 상호규정성의 근원이기 때문에 인간이 행하는 용서가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듯 키에르케고어는 다양한 죄들이 사랑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는 가능성, 즉 용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sup>25)</sup> 그에게 사랑으로 인한 죄의 용서는 타자 안에 있는 죄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그런 죄를 간과함으로 제거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사랑하는 자가 자신이 용서하는 죄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용서가 죄를 제거시킨다고 믿는다.”<sup>26)</sup> 따라서 용서는 엄청난 능력을 발산시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 받은 자로서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용서를 행해야 한다. 이것을 행하는 동안에 타자와의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 타자가 용서하는 자와 채무관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 타자의 죄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뜻한다. 죄를 양산

---

임규정, “키에르케고어의 사랑의 개념에 관한 일 고찰”,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제31집 (2003 겨울), 264.

24) Kierkegaard, 앞의 책, 19, 416.

25) 위의 책, 19, 324.

26) 위의 책, 19, 325.

시키는 과정을 멈추게 하는 것이 용서이다.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면, 그 죄는 벌을 요청하게 되는데, 인간에게 혹은 하나님께 벌을 주라고 소리 친다... 용서는 죄에서 생명을 취하지만 용서의 거절은 죄를 가까이 끌어 들이게 한다.”<sup>27)</sup>

이뿐 아니라 자아가 타자를 용서함으로 양 편의 자기이해가 달라진다. 즉 자아는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할 의무와 용서할 의무를 가짐으로 행동하는 주체를 변화시키며, 이 변화는 타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자아에서 이웃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은 하나의 동일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일치하며, 동일한 것에 기초해 있다.”<sup>28)</sup>

전술한 바 있듯이, 키에르케고어는 성향의 변화를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행위와 동일시하는데, 이것은 그의 기독교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오직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적용시킨다면, 이것은 결국 거리감을 조성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에 반해 용서에 바탕을 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를 타자를 포함시킨 대화로 이해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타자와의 사랑으로 나타난다면, 이웃사랑에 대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그 같은 행위가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흘러 나오기 때문이다.<sup>29)</sup>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는 타자와의 현실적 관계를 고양시키는 관계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적 동일성이 드러나게 되며, 타자와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의

---

27) 위의 책, 19, 327.

28) 위의 책, 19, 27.

29) 위의 책, 19, 89.

연관성이 명확해진다. 즉 인간의 다른 모든 관계, 즉 자기관계를 포함해 타자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이 사랑받는다는 것과 동일시 된다. 그 이유는 키에르케고어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보다 명확해진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를 사랑하려면, 너 눈앞에 보이는 인간들을 사랑하라. 너가 그들에게 행한 대로 너는 나에게 행한 것이다.’”<sup>30)</sup>

이와 더불어 맨 먼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근거를 둔 ‘회개’는 키에르케고어의 윤리적 사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행위를 유발시키는 회개의 기능을 촉진시킨다. 때문에 회개는 빛에 관한 의식에서 연유한다.<sup>31)</sup>

또한 키에르케고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에 근간을 둔 자기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의미의 진정성이 드러남을 강조한다. 자기관계와 타자와의 관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관계의 한 측면의 변화와 다른 측면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과 동시에 용서는 단번에 보증되었던 반면에, 이로 인한 변화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과의 지속적인 인간적인 사귄과 더불어 발전을 거듭해야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진 빛은 다른 인간에게 진 빛이기 때문이다.<sup>32)</sup>

환언하면, 키에르케고어는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빛으로 간주한다. 그것은 다른 파트너와의 관계 속에 머문 것으로 인해 생겨난 빛이다. 물론 여기서 빛을 청산하는 ‘청산관계’가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보상에 의존해 있지 않기 때문

30) 위의 책, 19, 177.

31) 위의 책, 19, 113.

32) 위의 책, 18, 75.

이다. 그러나 인간은 대개 자신의 사랑에 대한 상대방의 보상을 생각하며 사랑한다. 달리 말해, 우리는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줄 때, 그 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다시 되갚아 질 것이라는 기대가 동반된다는 말이다. 키에르케고어는 이런 보상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예로 든다.

“우리는 부모에 대해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사랑은 빛의 청산이거나 보상이다. 이런 말은 현실적인 청산관계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게 한다. 빛이 지워지며 그 빛은 갚아야한다 ... 사랑하는 자가 빛을 지고 있다.”<sup>33)</sup>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빛에 매여 있는 자이며, 동시에 관계의 파트너이다. 그러나 사랑받는 상대방은 빛을 지고 있지 않다. 타자가 빛에 매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만이 빛 속에 머물러 있으려한다. 자신이 빛 속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 타자는 청산관계에 매여 있지 않게 된다. 참된 사랑은 보상을 받아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하는 문제에 매여 있지 않다. 타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 사랑의 빛 속에 머물러 있으라는 자신을 향한 요청만이 의미를 지닐 뿐이다.

키에르케고어는 자신과 타자 사이에 맺어진 윤리적 관계에 대한 사상을 그런 방식으로 다루었다. 빛은 관계의 양 파트너 중에서 한편의 사람을 위해서만 유효할 뿐이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할 경우, 그런 사랑의 요구는 자신의 사랑에만 머물러는, 실질적으로는 사랑 없음을 의미한다. 인간이 자신의 사랑에만 머물러 한다면, 그것은 이것저것을 비교하면서 사랑하려는 이기주의적 사랑일 뿐이다.

---

33) 위의 책, 19, 195.

이렇게 되면 사랑에 청산관계가 세워지게 된다. 이런 청산관계는 사랑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불안으로 사랑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하며, 결국 자신의 사랑을 타자의 사랑과 비교하면서 다시금 사랑받기 위해 사랑할 뿐이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비교에 어떤 틈도 내주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랑으로써 하나님은 양 파트너의 관계 사이에서의 상호규정성으로써, 제 삼자로 구분된 관계로 규정된다는 사실에 있다.<sup>34)</sup>

자신의 사랑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보상을 받으리라는 사랑하는 자의 기대는 정당한 기대일 수 있다. 그런 기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간적 실존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키에르케고어는 사랑을 사랑하기 위해서나 혹은 사랑받기 위해 내적으로 존재하는 갈망으로 이해한다. 기독교적 사랑이 의무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사랑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갈망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물론 처음에는 그런 갈망과 더불어 시작했지만 자신의 사랑에 대한 타자의 보상이 사랑의 조건은 아니라는 사상적 발전으로 변화를 거듭하여 결국 그 갈망이 사라지게 된다.

## 2. 사랑의 덕을 세움

다음으로 키에르케고어에 있어서 사랑의 상호 주체적 작용은 사랑의 덕을 세우는 사상에서 잘 드러난다. 키에르케고어는 ‘고귀하다, 세우다, 짓다, 교화하다. 신앙심을 일으키다 등’의 뜻을 가진 동사, “erbauen”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끌어내다”로 해석한다. 특히 기독교에 있어서 이 동사는 다음과 같은 의도를 가진 보다 확장된 뜻을 가지고 있다. “만약 자아가 타자를 사랑하는 가운데 보다 신앙심이 견고해 진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타자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달리 말해, 자아가 타자에

34) 위의 책, 19, 201.

게 덕을 세우는 것이 가능한 것은 그 토대가 이미 타자 안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이미 타자 안에 있기 때문에 자아는 타자를 사랑하면서 덕이 세워진다. 타자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가능한 것은 창조자에 의해 타자 안에 심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이다. 키에르케고어에 따르면, 사랑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 안에 있으며 자아와 타자를 연결시키는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토대이다. 이것이 사랑의 덕을 세우게 하는 사랑의 속성이다.<sup>35)</sup> 사랑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연적 요소이다.

특히, 기독교적 이웃사랑에 있어서 덕을 세우는 것에 관한 질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제기된다.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덕을 세운다는 것은 바닥에서 위로 이끄는 것이다”<sup>36)</sup>라는 단순한 규정이다. 그러나 그런 규정의 근거는 사랑 자체에서 나온다. 덕을 세우는 것으로서 사랑은 고귀한 어떤 것이다. 동시에 그런 사랑은 모든 것의 근거이며, 특히 영적 삶의 가장 깊이 뿌리박힌 근거이다. 키에르케고어가 사랑을 인간의 영적 삶의 가장 깊이 뿌리박힌 근거라 한 것은 인간 현존(Dasein)의 결정적인 동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런 원리를 잘 드러낸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랑에 덕을 세우게 한다.”<sup>37)</sup>

특히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관계는 사랑의 콘텍스트(상황) 안에서 묘사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요일 4:8) 때문이며, 우리가 사랑할 경우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의 상호 주체적 논리가 잘 이해될 수 있다. 키에르케고

---

35) 위의 책, 19, 236.

36) 위의 책, 19, 235.

37) 위의 책, 19, 240.

어는 주체성으로부터 상호주체성으로 넘어감의 결과를 이로부터 이끌어낸다.

“사랑하는 자는 타자 안에서 가슴으로 느껴지는 사랑을 전제해야하며, 이런 전제하에서 타자 안에 사랑의 덕이 세워 진다. ... 사랑하는 자가 타자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행할 것인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 자신에게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 수 있을지 의무감을 가지고 숙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는 선을 끌어오며, 타자를 높이는 사랑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사랑은 유일한 방법, 즉 진심어린 사랑을 통해서 다루어 질 수 있으며 다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진심어린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을 뜻한다.”<sup>38)</sup>

그러므로 키에르케고어가 말하는 상호 주체적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나온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는 교호적(交互的) 구조를 뜻한다.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은 타자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며, 그래서 자신의 덕을 세우게 한다. 이렇듯 자아는 높이며, 타자는 높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랑이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이유로 자아가 타자 속에 사랑을 억지로 집어넣으려 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자가 자신의 사랑으로 타자 안에 사랑을 창출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되면 타자의 사랑이 자아의 사랑의 보상이라는 사실이 정당성을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 때문에 키에르케고어는 자아와 타자와의 관계는 초인간적 관계일지 모른다고 주장한다.<sup>39)</sup>

뿐만 아니라 자아는 결코 강요를 통해 타자를 높일 수 없다.<sup>40)</sup> 타자를 높이는 것은 “사랑하는 자가 (타자를)높이도록 사랑을 어떻게 다루느냐

38) 위의 책, 19, 241-242.

39) 위의 책, 19, 241.

40) “사랑 없는 자가 타자를 강요하면서 높이려한다면, 그것은 단지 모방일 뿐이다.” 위의 책, 19, 24.

에 달려 있다.”<sup>41)</sup> 만약 자아가 사랑은 타자 안에 있다고 전제한다면, 그는 이미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무엇을 행하고 있는 셈이다. 즉 자아는 다음과 같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타자를 주시하도록 강요받는다. 타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덕은 아주 특별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그와 함께 행하는 일에서 가능해진다. 자아의 사랑이 타자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키에르케고어는 이 질문에 다양한 답을 제공한다. 먼저 그는 타자를 높이는 것은 타자 안에 있는 사랑을 일깨우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사랑의 일깨움은 타자 안에 있는 선을 이끌어 내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런 식으로 그는 선을 이끌어내며, 사랑을 끄집어내며, 그래서 그는 높아진다.”<sup>42)</sup> 타자 안에 있는 사랑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타자에게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 또한 의미한다. 사랑하는 자가 타자 안에 있는 사랑을 일으킨다면, 타자의 자기관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셈이다. 물론 타자에게 일어난 자기관계의 변화가 또 다른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타자를 높인다는 것은 타자 자신을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게서 자신을 되돌려준다는 뜻이다. 그런 이유로 사랑은 항상 타자 안에 근간을 둔다. 때문에 자아의 사랑은 타자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다. 그러나 그 변화는 타자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아에게서 흘러나온 변화이다. 이런 자아와 타자의 사랑의 관계 속에 키에르케고어의 상호주체성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

41) 위의 책, 19, 241.

42) 같은 책.

#### IV. 결론적 제언

키에르케고어는 사랑의 요청의 일방성을 부각시킨다. 여기서 요청은 하나님으로부터 개개 인간들에게 미친다는 의미에 있어서 일방적이지, 단순히 자아가 타자와 마주함으로서 유효하게 되는 그런 요청이 아니다. 그럼에도 관계의 양 측면, 즉 나의 자기관계와 너의 자기관계에 변화의 토대가 형성된다. 관계의 양 측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키에르케고어가 말한 요청의 일방성을 토대삼아 인간적 동일성과 연결된다. 이를 통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사랑으로 맺어진 사회적 윤리성의 가능성이 마련된다.

인간들 간에 사랑으로 맺어진 사회 공동체의 초석은 윤리적인 것에 의해 마련될 수 있다. 이것은 자아와 타자 속에 있는 사랑을 전제한다. 자아는 사랑으로 타자를 높임으로써 타자의 사랑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보상하는 의미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본질적 속성으로서의 사랑이다.

“사랑은 사랑을 전제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타자와 함께하는 사랑을 전제한다.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은 타자가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자.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속성들은, 타자와 마주해서 그 속성들을 사용하는 경우에 자신을 위해 가지는 속성들이거나 혹은 타자를 위한 속성들임에 틀림이 없다 ... 사랑은 즉자적으로 존재하는 속성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속성이다.”<sup>43)</sup>

높이는 것과 높임을 받는 것은 상관성의 토대를 이루는 관계에서 가

---

43) 위의 책, 19, 247.

능해지지만 그 관계는 비대칭적이다. 사랑은 모든 사람 안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덕을 세우게 한다. 더구나 요청된 사랑은 죄로 인해 파괴된 인간들 사이에서 신뢰관계를 회복시키며 상호간의 본질적 순수성을 회복시킨다. 키에르케고어에 있어서 윤리적인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한 지침서의 역할을 하는 범례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상호간의 사랑에 바탕을 둔 윤리적인 것은 사회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정직성을 다시 불러일으키게 하며, 이를 통해 주체성의 상호 주체적 차원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활력을 불어넣는다.

따라서 타자를 향한 나의 행위는 사실은 나를 향해 있으며 나에게 대해 어떤 무엇을 진술하는 것이며, 그 근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런 행위는 특정한 의미를 제공하며, 특정한 행위규칙을 표현한다. 나아가 그런 행위는 행위자와 상대자 양 측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의미를 창출해내는 상호 주체적 소통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사랑의 역사는 일방적으로 맞추어진 ‘발신인-수신인’ 간의 소통의 의미를 지닌 단순한 전달행위가 아니라 주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 소통의 ‘사건’으로 간주되어야 한다.<sup>44)</sup> 때문에 키에르케고어의 대표적 작품 중에 하나인 『사랑의 역사』는 담론적 수준을 벗어나 상호 주체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사상으로 독자들을 안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키에르케고어는 상호 주체적 관계성을 관계적 존재론에서 생각한다. 특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에 등장하는 ‘정신의 개념’은 자아의 관계적 개념의 가장 명확한 형태로서 의미를 지닌다.<sup>45)</sup> 이런 개

44) 참고, K. Nordentoft, *Kierkegaard's Psychology*, trans. B. Kirmmse(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1978), 354. ‘사랑의 역사’는 자유와 힘에 관한 소통 이론적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제공한다.

45) “자이란 자기 자신에게 태도를 취하는 관계이거나 혹은 자신을 자기 자신과 태도를 취하는 관계에 대한 관계이다. 자이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자신을 자신에 대해 태도를 취하는 관계이다... 이에 반해 관계가 자신을 자신 스스로에 대해 태도를 취하게 한다면, 이런 관

넘은 사랑의 역사에 있어서 주체적 차원에서 상호 주체적 차원으로 넘어간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개개 주체의 자기관계가 아니라 한 공동의 실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두 인격 간의 행위관계이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다른 모든 것들을 이끄는 근원적 규정에 해당된다.<sup>46)</sup> 여기서 자아와 타자와의 상호 주체적 행위관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너가 발견하듯이, 타자는 너와 마주해서 행한다.”

키에르케고어의 주요 작품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런 실천으로 인해 맺어진 관계의 역사이며 구성이다. 행위자는 항상 특정한 상호 주체적 관계와 그의 행동을 유발하는 상황 속에 존재한다. 그는 항상 실천의 상황 속에 얽혀져있다. 이것은 사랑을 위해 가치를 지니며 사랑의 행위를 통해 그 방식을 드러낸다. 사랑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모든 형태들은 이런 관계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바르게 이해된 기독교적 사랑 또한 존재론적으로 축소될 수 없는 삼자적 관계를 통해 확장된 영역에서 실천적으로 표현된다. “기독교는 사랑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들 간의 관계임을 가르치며, 여기서 하나님은 상호규정성임을 가르친다.”<sup>47)</sup>

그러므로 사랑의 역사는 주관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거나 책임을 지닌 행위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사건은 운동과 관계하는데, 사랑의 경우에 있어

---

계는 긍정적인 제 삼자이며, 그 자체이다.” S. Kierkegaard, *Die Krankheit zum Tode*, in: ders. *Gesammelte Werke* Abt. 24/25, hg. von Emanuel Hirsch und Hayo Gerdes, (Güterslohe: Gütersloher Verlag, 1985), 8.

46) “너는 다만 타자와 마주해서 행하는 것과 관계하거나 혹은 너가 발견 하듯이, 타자가 너와 마주해서 행하는 것과 관계한다. 방향은 내부를 향해 있으며, 너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만 너와 관계할 뿐이다.” Kierkegaard, 앞의 책, 19, 420.

47) 위의 책, 19, 119.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것은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A. Rudd, *Kierkegaard and the Limits of the Ethical*(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73.

서 ‘소통적 운동’으로서 이해된다.<sup>48)</sup> 행위자(사랑하는 자)는 “사랑이 메말라 있는 자에게 보다 고귀한 어떤 것을 제공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고양시키는”<sup>49)</sup> 표현의 운동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를 이성을 가지고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아파트 평수와 사는 동네, 몰고 다니는 차량의 종류와 직장 등에 따라 편을 가르는, 소위 심각한 양극화 현상으로 얼룩진 슬픈 현실과 마주해 있다. 이로 인해 서로를 질시하고 반목하고 무시함으로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한국 사회의 자화상을 보게 된다. 자아와 타자 사이에 상생과 공존, 그리고 상호간 인정을 지향하는 상호주체성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언급한 키에르케고어의 상호 주체적 사상이 오늘날 일그러진 한국사회를 추스르고 정립시킬 새로운 대안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sup>50)</sup>

---

48) 그런 소통적 운동은 말과 태도와 행동을 통한 의미전달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의미전달자는 화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비유적으로 말하며, 은닉되고 다듬어 지지 않은 사랑의 본질로부터 인식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상호 주체적 영향을 미치는 사랑의 현상으로 나아간다. 물론 그런 운동 안에서 자신의 본질을 유지시켜 나간다. 실천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한 상태나 혹은 개인 관계의 동기로부터 이웃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운동이다. 참고 위의 책, 19, 309.

49) 위의 책, 19, 372.

50) 사실 상호주체성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늘보좌의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당시 지배계층에 속했던 유대 종교지도자들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되었던 죄인들과 밥상공동체를 이루시고 친구가 되시며, 급기야 그 친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우정과 사랑을 실증해주셨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강학순. 『근본주의의 유희과 야만성: 현대철학에 그 길을 묻다』. 서울: 미다스북스, 2015.
-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윤리학』. 고양: 인간사랑, 2002.
- 이승구. “키에르케고어의 『사랑의 역사』에서 나타난 사랑의 윤리”.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제11권 1호(2006), 104-146.
- 이명근. “키에르케고르: 윤리적 실존의 양상과 사랑의 윤리학”.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제129집(2014), 167-191.
- 임규정. “키에르케고어의 사랑의 개념에 관한 일 고찰”.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제31집(2003), 261-289.
- 장호광. “칼뱅의 타자에 대한 인식과 상호주체성: 갑질로 물든 한국 사회 문제의 해결방안을 위하여”. 한국개혁신학회, 『한국개혁신학』 47(2015), 42-67.
- 최승일. “하버마스과 키에르케고어에 있어서의 주체성 비교”.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제27집(2002), 32-49.
- 표재명. 『키에르케고어의 단독자 개념』. 서울: 서광사, 1992.
- 홍경실. “키에르케고어와 레비나스의 주체성 비교”.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제27집(2004), 143-172.
- Kierkegaard Sören. *Gesammelte Werke, Abteilung 19: Der Liebe tun. Etlche christliche Erwägung in Form von Reden.* übersetzt von Hayo Gerdes. Düsseldorf/Köln: Eugen Diederichs Verlag, 1966.
- \_\_\_\_\_. *Die Krankheit zum Tode*, in: ders. *Gesammelte Werke Abt. 24/25*, hg. von Emanuel Hirsch und Hayo Gerdes.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1985.
- Nordentoft K. *Kierkegaard's psychology*, trans, B. Kirmmse.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1978.
- Rudd A. *Kierkegaard and the limits of the ethic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논문투고일: 2016년 2월 28일

심사개시일: 2016년 3월 11일

게재확정일: 2016년 4월 09일

• 국 문 초 록 •

오늘날 한국사회를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소통과 배려의 부재, 승자독식과 약육강식, 과도한 경쟁의식, 정치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 극단적 대립현상(우파와 좌파), 그리고 있는 자들의 슈퍼 갑질 등으로 인해 불거진 편 가르기와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뒤덮고 있다. 자아와 타자의 관계를 상생과 공존 그리고 상호 인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하고 무시하는 적대적인 관계로 치닫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과 마주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본고의 목적은 제목에서 잘 드러나 있듯이, 키에르케고어의 대표적 작품인 『사랑의 역사』에서 드러난 상호 주체적 사상을 소개하여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불거진 한국 사회문제를 해소할 대안을 암시적으로 제시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1장 “서론”에서는 전술한 현 한국사회의 상황에서 키에르케고어의 상호주체성을 소개해야 할 문제의식과 당위성을 제시해 보았다. 2장 “상호주체성의 인식가능성”에서는 키에르케고어가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인간의 내적 상태나 감정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 현상(행위)으로 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상호주체성에는 인식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드러내려 했다. 그 인식가능성은 “이웃의 개념인식”과 “나-너의 관계”, “인간 상호 간에 드러난 상이성”, “이웃됨의 인식” 그리고 “타자에 대한 이중적 인식”에서 보다 자세히 소개된다. 그리고 3장 “사랑의 상호 주체적 작용”에서 키에르케고어의 상호 주체성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즉 자아와 타자 간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상호적 작용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남이 서술된다. 이런 사랑의 작용이 “사랑의 빛”과 “사랑의 덕을 세움”으로 구분하여 소개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키에르케고어의 사랑의 역사는 일방적으로 맞추어진 ‘발신인-수신인’ 간의 소통의 의미를 지닌 단순한 전달행위가 아니라 주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 소통의 사건임이 부각된다. 자아와 타자 사이에 상생과 공존 그리고 상호간 인정을 지향하는 키에르케고어의 상호주체성이 오늘날 일그러진 한국사회를 추스르고 정립시킬 새로운 대안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고가 마무리 된다.

주제어: 키에르케고어, 이웃, 상호주체성, 사랑의 역사, 인식가능성